



“건축의 오늘을 읽고, 내일을 쓰다…대한건축사신문, 콘텐츠 혁신 나서”

법률·회계·해외건축 등 전문분야 필진 구성

“건축계 현장과 담론 폭넓게 담는다”

8월 1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서

‘2026년 대한건축사신문 필진 위촉식’ 열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건축계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필진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건축정책과 설계 등 건축사 업무, 학술연구를 비롯해 지역건축과 해외건축 등으로 전문영역을 넓혀 건축계 현장의 목소리와 깊이 있는 담론을 함

께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1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대한건축사신문 필진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구성된 필진(집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필진 개편은 대한건축사신문의 콘텐츠 방향을 재정비하고 건

축 전문 언론으로서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회 편집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콘텐츠 성격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 필진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는 건축계 내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건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법률·회계·노무·문화유산·해외건축 등으로 외연을 넓혔다. 여기에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더해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을 연결하는 콘텐츠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2면 계속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10일 건축사회관에서, ‘2026년 대한건축사신문 필진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팩트체크 ①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와 책임’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64)」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앞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이하 특별조치법)과 사실상 한 세트로 추진됐다. 특별조치법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

회를 주는 ‘양성화’(당근)라면, 건축법 개정안은 양성화 이후 위반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단속·처벌 강화(채찍)에 해당한다. 정부는 1981년 이후 여러 차례 양성화를 시행해 왔지만, 개정안의 벌칙에 설계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함께 담기면서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회원들의 궁금증을 팩트체크로 짚어 봤다.

Q1. 설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건축사가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 설계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과 모든 설계자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법안은 12년 만에 다시 열린 특별조치법(양성화)과 건축법 개정안이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건축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조사선 규제 완화 및 주차장 특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양성화 이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처벌이 함께 강화된 구조이다. 설계자 형사처

벌 조항은 개정 건축법 제108조(벌칙)제1항제1호 및 제110조(벌칙)제1호의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개정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설계단계에서도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새롭게 만든 안전장치이다.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 벌칙 조항이 명시한 위반사항의 대다수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주가 무단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설계해 인허가를 완료한 설계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구상

권 행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 체계상 ‘설계자라는 지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된 관여’가 중요한 요건이며,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 등 사실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고, 구상권의 경우 청구자가 설계자의 귀책사유를 설계도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설계자의 실수로 위법하게 설계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시정이 완료되면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감되고 있다.

▶ 3면 계속

NICE인프라

고객이 선택한
아파트 무인주차관리 플랫폼

NICEPARK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기념 EVENT!
무상 유지보수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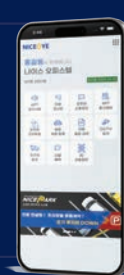
설치문의 1522-0741 협력사 문의 02-2122-5486

AI 양방향 LPR



- 루프리스 시스템 적용 (시공 유지보수 절감)
- AI 양방향 번호인식 기술 적용
- 특수번호판 인식 지원 (긴급차량, 외교용 등)

나이스아이(공동주택용)



- 방문차량 사전예약 및 관리
- 입주주민 생활편리 서비스 제공
- EV 충전 서비스 연동 지원

방문자 키오스크



- 사전 예약, 현장등록 동시 지원
- 방문증, QR 기반 출입 지원
- 방문 이력 자동 저장 및 관리

다양한 홈네트워크 연동



- 홈네트워크, 아파트 운영 APP 연동
- 국내 최다 연동 서비스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현안 간담회



8월 12일 김재록 회장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소규모 건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8월 12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건축업계와 골목상권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지

역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주거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아파트 중심으로 획일화된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또한 소규모 건축과 지역 단위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사 등 전문인력이 지역의 도시·건축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은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도시의 경쟁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대한건축사협회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간담회



김재록 회장은 8월12일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통일에 대비해 건축계가 북한의 도시재건 전략 마련 등 협력의사를 전달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8월 12일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재건 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록 회장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며 “통일 이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북한 전역의 도

시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도시 구상과 도시재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이 단순한 주거·인프라 공급이나 도시개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마을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록 회장은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준비된 계획에 따라 새로운 한반도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건축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간담회



8월 11일 김재록 회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지역건축사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8월 11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지역건축사 지원 활성화 방안과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천년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축사들이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

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재록 회장은 「천년건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총괄건축가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장을 잘 아는 건축사가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재록 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를 찾아 시·도지사님들과 소통하며 지역건축사를 지원하고, 신진건축사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지역건축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건축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과 간담회



8월 6일 김재록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신진건축사를 포함한 K-건축의 해외진출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8월 6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K-건축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신진건축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건축사의 우수

한 설계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건축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신진건축사들이 해외 프로젝트와 국제적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록 회장은 “우리 건축사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설계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K-건축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면<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에서 계속

건축물 높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0미터 이하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 17미터 이하	5미터 이상
17미터 초과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리=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는 개정 건축법의 공포·시행 과정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해석·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회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적용범위와 업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Q2. ‘적법하게 설계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뒤 건축주가 무단으로 고친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

가 그 변경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법조문이 아니라 ‘입증의 현실’에 있다는 지적도 회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상권 소송 구조에서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설계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 전략이 되며, 이때 법원이 실제로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기록이다.

대법원 역시 이미 설계자·감리자에게 하자를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을 요청할 성실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개정 건축법의 구상권 조항은 이 같은 기존 판례상의 의무를 형사·금전적 책임의 언어로 명문화한 것에 가깝다. 즉,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설명·경고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설계자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법률의 공포 및 시행 과정과 관계부처의 해석·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회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적용범위와 업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Q3.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 강화 외에 건축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일조사선 기준이 법률로 상향되면서 현

실에 맞게 완화됐다.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에 따르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높이 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5m 이상 ▲17m 초과 시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간별로 명확화됐다. 이는 도심 소규모 대지에서 용적률이 남아있어도 일조사선에 막혀 상층부를 계단식으로 깎아야 했던 설계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다. 다만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어, 실제 설계 시에는 시행령 확정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제52조제5항·제6항), 내화체육구조 등 품질인정자재 관련 위임 규정 신설(제52조의5제3항) 등 최근 잇따른

지하주차장·필로티 구조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Q4.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개정 건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지하층 마감재료 관련 규정(제52조제5항·제6항)은 공포 후 2년, ▲건축자재 품질인정 관련 규정(제52조의5)은 공포 후 1년, ▲일조사선 완화 규정(제61조제1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편 함께 추진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접수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도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설계자 책임 범위와 실무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개정 건축법의 본질, ‘자격 처벌’ 아닌 ‘위법 관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축법」을 둘러싸고 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위반건축물 근절을 명목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하고 구상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적법하게 설계했음에도 사후 건축주나 시공자의 임의 변경 때문에 건축사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과도한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의 본질과 입법 취지를 냉철히 따져보면 이러한 해석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이자 행정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도교통부가 본 개정을 추진한 핵심 취지는 사용승인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임의시공이나 무단 변경을 처벌하려는 데 있지 않다. 실질적 목적은 바로 ‘처음부터 불법을 예정하고 기획한 위법 설계’를 엄단하는 것이다.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서 명시한 설계자의 문제 사례 역시 “건축주 지시로 준공 후 위반행위를 의도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였다. 허가 단계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하면서 준공 후 다가가 쪼개기를 위해 미리 배관·계량기를 배치하거나, 옥상 불법 증축을 염두에 두고 구조와 설비를 편법 반영하는 등 불법을 사전에 공모하여 설계

도시를 제공한 행위가 본 개정안의 직접적인 벌칙 대상이다.

따라서 건축사가 법령에 맞춰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완료한 설계도서라면, 건축주나 시공자가 사용승인 후 임의시공을 하거나 무단증축 등을 감행하더라도 설계자에게 형사책임이나 구상권이 전가될 수 없다. 우리 법체계의 대전제는 ‘설계자라는 지위’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한 입증된 관여’ 때문에 책임을 지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민사상 귀책사유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공모 사실은 수사기관이 엄격히 입증해야 하며, 민사상 구상권 역시 청구하는 자가 설계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를 설계도면을 통해서 명백히 입증해야만 성립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엄밀한 법리에 기반한 냉철한 대응이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세대수 변경이나 무단증축을 고려한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기획·설계 과정에서의 회의록과 서면기록, 메일, SNS 메시지 등 업무기록(Data)을 철저히 보존·관리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실무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협회 또한 주무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선의의 건축사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와 권익을堂堂히 지켜나갈 때이다.

내가 사는 도시 여행 ‘인천’



인천에 살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이제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인천이라는 도시를 여행하듯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가까운 해수욕장과 갯벌, 섬을 오가며 해양도시의 매력을 느꼈다. 그러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인천의 또 다른 얼굴인 산업도시의 풍경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항구를 품은 도시이자 바다를 건너는 공항도시, 매립을 통해 확장된 신도시와 국제도시까지. 인천은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도시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산업도시로서의 모습이다. 도로 위를 오가는 수많은 중장비 차량은 단순히 신도시 건설 때문만은 아니었다. 곳곳에 자리한 공장과 대형 물류창고는 이곳이 공업과 유통의 중심지임을 보여준다.

봄이 되어 벚꽃이 피면 동네의 대표적인 기업인 SK 석유화학 공장이 벚꽃동산을 개방한다. 예전에는 환경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공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도 있는데, 회사 버스를 타고 거대한 회색 설비들 사이를 둘러보는 경험은 색다른 인상을 안겨주었다. 푸른 경치의 구

내식당과 그림책이 놓인 휴게공간까지 둘러보며 동네의 산업시설이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월미도로 향하는 길목인 인천 내항 제7부두에는 ‘사일로 벽화’가 있다. 대형 곡물 저장창고에 그려진 이 벽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의 벽화로, 2018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낡은 산업시설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다.

산업도시와 해양도시,

원도심과 공항도시까지

다양성 공존을 모색하는 도시

이처럼 기존 시설의 형태를 유지한 채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하거나, 운영 중인 산업시설 역시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천은 세계 여러 산업도시의 사례와 친환경 건축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가능성의 도시로 다가온다.

인천의 내륙으로 들어오면 신도시와 오래된 원도심이 공존한다. 그중 중구와 동구는 뚜렷한 개성

을 지닌 지역으로, 최근 제물포구로 통합되었다. 한때 인천의 중심지였던 이곳에는 다양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곳도 많다.

동구청 인근을 따라 걷다 보면 ‘배다리’라는 보물 같은 공간을 만나게 된다. 1960년대 헌책방 거리로 형성되어 한때 40여 개의 서점이 모여 있었지만, 지금은 다섯 곳만 남아 있다. 노후도시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골목은 그 자체로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품고 있어 더욱 깊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중구청 주변에는 근대문화도시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인접한 차이나타운은 이미 널리 알려진 관광지다. 세계 여러 도시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짜장면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각 식당은 저마다의 맛과 역사, 경치와 인테리어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비슷한 분위기의 외관 때문에 건축적으로 특별히 더할 것은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공간이며 나 역시 자주 찾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중심을 오랫동안 가로지르던 인천대로는 이제 점차 공원과 녹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시를 나누던 길이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며 원도심을 더욱 설레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오늘도 변화와 가능성 사이에 있는 인천을 여행하듯 살아가고 있다.

HIMPEL
숨쉬는 집®

집을 숨쉬게 합니다, 힘펠



욕실 환기가전



휴젠뜨 루미

공기·습도·온도까지 한 번에 관리
하루 흐름에 맞춰 공간을 바꾸는 LED 조명



휴젠뜨 3

환기·온풍·제습·드라이로 더 쾌적해지는 욕실
무드조명과 음악이 더하는 편안한 휴식

주방 환기가전



휴클라 스퀘어 후드

조용하지만 강력한 주방 환기
정풍량 설계로 강력한 흡입력
요리 후에도 상쾌한 주방 공기

시스템 환기가전



휴벤 ECO

각실 맞춤 환기로 집 전체 공기를 관리
에너지 손실은 줄이고 쾌적함은 최대화



2024-2025 2년 연속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환기가전 부문 - 한국 소비자 포럼 선정

TEL.1899-0991 본사 경기도 화성시 안영남로 5 쇼핑몰 www.himpellmall.com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설계학회, 건축설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우수 건축설계 성과와 인재 발굴·추천 등

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 ‘맞손’



8월 7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설계학회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설계학회는 8월 7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건축설계 분야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급변하는 미래 건축환경에 대응하고, 건축현장, 교육과 실무, 학술연구를 아우르는 최고 전문가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건축계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결하고, 대한민국 건축설계의 경쟁력 강화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축설계 분야의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건축설계 전문인력 양

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술연구, 정보교류 및 연구과제 발굴 ▲우수 건축설계 성과와 인재의 발굴·추천·홍보 ▲행사와 교육을 위한 시설 인프라의 상호 제공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김재록 회장, 안충환 상근부회장, 유준호 부회장, 이선경 부회장, 김지한 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건축설계학회에서는 이강준 회장, 이정훈 부회장, 김준호 부회장, 이태영 부회장, 맹필수 부회장, 오스카강 부회장, 백한열 부회장이 함께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대한민국 건축설계 연구와 발전을 이끌어주고 있는 한국건축설계학회와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축설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

큼, 실무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건축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제도 개선,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축설계학회 이강준 회장은 “건축설계 교육과 연구, 실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건축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학술과 실무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 건축설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축설계학회는 국내 건축설계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건축교육과 실무를 연계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건축 전문 단체다. 특히 건축사회관에 사무국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한국건축설계학회 이강준 회장이 업무협약에 서명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을 두고, 학술대회와 전시회, 출판 등을 통해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설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계교육과 실무의 연계 강화, 미래 건축설계 방법론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관희 기자

국내 신진건축사 7개 팀, ‘Architecture Asia’ 특별호서 집중 조명 ‘최초’

우지앙 ARCASIA 회장 특별 초청,

상하이 통지대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포럼’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국제 홍보·교류 연계한 글로벌 지원사업 결실 맺어



‘Architecture Asia’ 최초로 진행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특별호’ 발간을 기념하는 간담회 참가자들이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내 신진건축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건축사협회의(ARCASIA)와 함께

저널 『Architecture Asia』 최초의 한국 신진건축사 특별호(Young Korean Architects Special)를 발간했

다. ‘Architecture Asia’는 아시아건축사협회의(ARCASIA)가 발간하는 공식 저널로, 아시아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다양한 건축 담론과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국제 전문 매체다. 글로벌 관점에서 아시아 건축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현대 건축의 흐름과 혁신적인 연구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별호에는 선정된 7개 팀의 대표 프로젝트와 설계 철학, 디자인 접근 방식이 심도 있게 소개됐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가 비평을 통해 한국 신진건축의 특징과 발전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했고, 이기철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은 객원 편집자로 기획과 편집을 총괄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팀은

▲에이루트건축사사무소(이창규·강정운) ▲(주)에이코랩 건축사사무소(홍진표·정익식) ▲건축사사무소 1458(최세발) ▲짓다 건축사사무소(조운경·김동현) ▲(주)김오 건축사사무소(김지희) ▲(주)건축사사무소 오드투에이(정은주·이희원) ▲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신정엽)이다.

특별호 발간에 이어 선정된 신진 건축사들은 오는 10월 23일 중국 상하이 통지대학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작품과 건축 철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지앙(Wu Jiang) ARCASIA 회장의 특별 초청으로 마련됐다. 국내 신진건축사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작품과 철학을 소개하고 세계 건축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진건축사의 해외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성과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Architecture Asia’ 한국 특별호 발간과 통지대학교 포럼 개최는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진건축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영화로 만나는 건축…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공개

개막작은 ‘프로세스: 진화하는 공공건축, 구마모토’…

세계 최초 월드 프리미어

9월 5일 개막…12개국 14편 상영

공공건축·도시·공간·건축 철학 다채롭게 조명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가 오는 9월 5일 개막을 앞두고 개막작을 비롯한 전체 상영작을 공개했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프로세스: 진화하는 공공건축, 구마모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umamoto

Artpolis·KAP)’의 38년 여정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조명한다. 구마모토 곳곳에 축적된 건축의 흔적과 도시의 변화를 담아낸 이 작품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World Premiere)로 상영된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12

개국에서 출품된 14편의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영화제 슬로건인 ‘101’이 담고 있는 ‘건축의 기초와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과 도시, 공간, 건축사의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룬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상영작들은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로 바라보며, 관객이 건축의 본질과 공간의 의미를 보다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건축과 공간에 대한 탐구를 이어온 케빈 시유안 감독의 신작 ‘썸머 아일랜드’, 정다운 감독의 신작 ‘더 스튜디오: 바퀴 위 공간에서, 땅 위의 공

간으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공성과 도시, 공간의 기억, 건축가의 철학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열린다. 오프라인 상영은 9월 5~6일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상영은 9월 6일 저녁부터 20일까지 네이버 TV를 통해 이어진다. 영화 상영과 함께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게스트 토크 등 관객과 건축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영작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포스터

식 홈페이지(www.sia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주요 입법 및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협회 대응 현황

법안	대표발의	발의 내용	협회 의견	진행상황
건축법	허영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 반대 : 의견서 제출 - (현행유지)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소위 회부
	염태영	- 공장·창고시설의 지붕 내화구조 대상 확대 (공장 2,000㎡, 창고 500㎡ → 모든 규모) - 불연재료 사용대상 확대 : 지하주차장 마감재, 필로티구조 천장 배관에 단열재 사용 시 등	□ 반대 : 의견서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상충 및 외장재의 불연재료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행 유지	법사위 통과
	황희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규제 완화 (현행) 1.5m → (개정) 3.0m	□ 반대 : 의견서 제출 - 다락이 거실 용도로 남용되고, 안전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안전성 저해 및 타 용도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함	소위 회부
	손명수	산업단지 동일 부지 내 건축물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	□ 반대 : 의견서 제출 - 별개의 허가를 득한다 해도, 선행된 건축허가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기존 허가 건에 대한 상호 검토는 반드시 필요	국토위 회부
건축물 관리법	윤영석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미만, 2층 이하 등)의 해체계획서의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여 해체신고 간소화	□ 조건부 동의, 반대 : 의견서 제출 -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생략 범위 한정 - 해체작업자 해체계획서 작성(공정, 안전관리 부문) 참여 반대	소위 회부
주차장법	허영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은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 반대 : 의견서 제출 - 「주차장법」과 무관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바, 개정안 반대	소위 회부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법제처 건축실무 질의회신 : 2. 건축물 용도

1.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법제처 [12-0127, 2012.4.3.]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같은 별표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일응(一應)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비록 해당 시설이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자료=국토교통부)

‘유사명칭 사용’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6년 9월 18일부터 「건축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무자격자의 건축사 업무수행 표현·표시 및 건축사 고용·공동운영도 **형사처벌 대상!**

※ 「건축사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등에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까지 확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 불공정 신고센터 QR코드

건축 감리보수와 소멸시효



지난 호에서는 건축공사감리자의 감리보수 청구에 대하여 감리비 기간 보수 약정 및 감리보수 비율인정의 법적 근거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감리자의 보수를 일시금이 아닌 총금액을 정하되 그 지급을 계약금, 일정 기간에 걸쳐서 수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사용검사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관례는 이를 ‘민법 제 686조 제2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여 만일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전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 등 확립된 관례)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감리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문제는 실무에서 보면 위와 같이 기간 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설사업 시행 도중에 공사의 중지 또는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계약이 인수·연장·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에 이미 발생한 감리보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대금(기성고채권포함)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에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비 보수채권이 건설공사대금채권은 아니지만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대

법원은 예전부터 감리보수채권이 라는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3호에 규정된 ‘

공사감리계약의
감리비보수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감리계약 시 기간으로 정하여
보수를 정한 경우
각 보수가 발생한 시점
즉 청구할 수 있는 시점별로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감리비채권이 연체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해야 함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를 도급 계약 및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 용역(설계·감독 등) 전반으로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등 참조)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명칭에 상관없이 ‘공사의 감리’ 역시 공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 용역으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법원에서도 ‘현장시공감리비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공사감리를 수행한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현장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총 7개월간 매월 400만 원의 감리비를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개월간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감리비 1,8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

고는 원고가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주 피고의 주장 즉 감리 업무 불이행 및 계약 해지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채권의 변제가가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78381 판결).

결국 감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점,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예컨대 월별로 감리보수를 정한 경우) 각 월별로 보수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3년간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감리비가 연체되고 있다면,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또는 압류 등)’, ‘시효연장 협의서 작성’, 또는 ‘채무 확인서(지급각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건축사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전문자격사업입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새로운 건축 업무영역을 발굴하고,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건축사법인 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국내 건축사무소를 운영해 오셨다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의 방식은 세 종류가 있으며 그중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법인이 양수하는 방식을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합니다. 이

경우 개인건축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①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②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신규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건축사)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 양도 시 개인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법인으로 넘어가 법인세로 과세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는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은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괄양수도 거래는 건축사 개인과 법인 양자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법인 설립이 우선 필요하고, 개인건축사가 신규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법인 자본금이 건축사무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일 현재 순자산가액 시가평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상 우리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일부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임대차 계약 승계내역, 법인의 사업양수 후 사업양태 등의 실질을 종합하여 판

▶ 관련 법령	
법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9조②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1.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2. 제5항에 따른 금액(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3. 법인을 설립하고, 그 4.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5.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대법원 2012년 12월 13일자 선고 2012두17865 판결)하므로 기존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이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사

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무료 상담: 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대표 세무사(contact@arumtax.com)

조달청, 설계공모 참가자격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자격,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서 확인

조달청, ‘설계안’ 중심으로 설계공모 간소화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 참가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설계안 중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현행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

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계공모안을 작성하고도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사무소는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무소로 간소화하

는 것이다. 앞으로 공모 단계에서는 건축사무소 자격만 요구하고, 전기·통신·소방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를 공모단계에서 계약단계로 조정한다. 공모단계에서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고, 당선자가 전문분야 자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날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임헌익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은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32기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개강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
특별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32
기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이 오는 8
월 28일 개강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32기 교육을 8월 28
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주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지원 자
격은 국가전문자격자, 기업체 CEO
및 임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모집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입학지원서 접수 후 교육비
를 입금하면 된다. 교육은 서울 서초
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진행되며,
개강식은 8월 28일 금요일, 이후 강
의는 목요일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
2088-5210)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26 신진건축사포럼 워크숍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신진건축사위
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
지 이틀간 경기도 가평 좋은아침연
수원에서 ‘2026 신진건축사포럼
워크숍’ 을 개최했다.
올해 워크숍의 주제는 ‘플러그-인
(Plug-In)’ 으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진건축사들이 겪는
시행착오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가능
성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모자모싸(모두가 자신의 모자람
과 싸우고 있다)’ 는 키워드로 폐차
쿠차를 공유하고 AI 활용한 건축 설
계 프로세스, 건축사 역할에 대한 특
강 등을 제공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주대학’ 성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5월 개
강했던 제2기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주대학(이하 건축주대학)’ 이
1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7월
28일 종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축주 대학은 ‘시민건축교육’
의 일환으로, ㈜디자인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예비 건축주에게 건축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5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 제1기 과정은 ‘전문가가 알려
주는 내 집짓기 A to Z’ 을 주제로

진행했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수료
생 중 여러 명이 올해 제2기 과정에
신청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줬다. 후속 교육에 대한 수강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는 ‘수익형 건
축 전략, 실전 로드맵으로 안목 키우
기’ 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론 강의뿐 아니라 사옥 건축 현장
답사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교육
으로 제2기 과정도 수료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전재수 부산시장과 간담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7월 23일 부
산시장 시장실에서 부산광역시 전
재수 시장과 취임 후 첫 공식 상견례
를 겸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와 부산건축
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부산
의 미래 공간정책과 건축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건축사회 강미숙 회장은 먼저
부산건축사회가 추진해 온 소외계
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시민 건축
문화 확산 활동을 소개하며 “건축
사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담아내는
공간 전문가이자 지역 발전의 동반
자” 라며 부산시 정책 추진 과정에
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건축사회
의 정책 제언과 공익적 활동에 감사
를 표하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 선
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형
적 성장보다 공간의 질적 혁신이 중
요하다” 며 공간 민주주의에 뜻을
같이했다. 이어 “제안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등 주요 정책이 시정에 적
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부산시의회와 간담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부산시 주
택건축국, 부산시의회와 7월 15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부
산건축사회 강미숙 회장, 부산시의
회 강무길 의장, 주택건축국 김효숙
국장을 비롯해 각 구·군 건축사협
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 건
축의 발전’ 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한 심
도 있는 의제들이 다뤄졌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도시 안전과 빈집 문제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와 현장 실무의 균형 ▲지

역 건축계의 미래를 위한 청년 건축
사 육성 방안과 신시장 개척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부산건축사회 강미숙 회장은 “최
근 안전 규제는 급격히 강화되는 반
면 현장에서의 여건과 지원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실상 건축사에
게 책임만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
형식적인 책임 강조에 그치기보다
실질적인 재난 예방이 가능하도록
규제와 현장 실행력 사이의 제도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언급
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2026 어린이건축한마당’ 성료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2026 어린이건축한마당’ 이 7월
25일 성료됐다. 어린이건축한마당
은 어린이들에게 건축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일상 속 건축문
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역 건축 교육 프로
그램이다. 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을 대
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부산
건축사회는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미래 건축 인재 육성과 지역
사회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앞장서
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미래 환
경에 대한 고민을 담아 ‘상상의 바
다와 함께하는 건축(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게 될까?)’ 이라는 주제로 저
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신수정 신임 북구청장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과
김민호·박진호 부회장으로 구성
된 회장단은 7월 23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북구청을 방문해 신수정
신임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
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건축사회와
북구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
축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
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축계 주요 현
안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축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건축계 간 지속적인 소
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한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가 7월 25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 시민
홀에서 개최됐다. ‘똑딱똑딱 히어
로! 내가 만드는 안심 광주’ 를 주
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광
주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
모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건
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어린이들
의 참신한 생각이 담긴 작품을 통해
미래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며 “이번 대회가 어린이
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심을 갖
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자 교육 성료



전라남도건축사회가 7월 7일과 10
일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
자 교육을 성료했다.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전남건축
사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스마트
시티 ICC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
원하고 지역 건축사의 AI 활용 역량
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 마스터 재
직자 교육이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축설계 업무 효율화와 건축 시각
화 실무 적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행정안전부와
재난피해 주택신축 지원 MOU



전라남도건축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에 따른 업무협약을 7월
24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복
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와 광주광역시건
축사회가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7월 2일, 23일과 30일 세 차례
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에는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과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
해 통합추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
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
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건축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협회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조직 운영방향을 검토하
고, 광주·전남건축사회의 통합 또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AI 교육 실시



경상북도건축사회가 AI 입문교육
을 진행했다. 4월 30일 포항을 시작
으로 구미(6 / 17), 경산(6 / 24), 안동
(7 / 2)에서 마무리된 입문 교육은
경북건축사회 건축AI위원회가 주
관하고, 강진호 건축사(경북건축사
회 건축AI위원회 위원장)가 강의를
맡았다. 8월 14일과 28일에는 건축
사 AI역량 강화교육이 시행될 예정
이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경주시장과 간담회



경상북도건축사회가 경주시장과 7
월 21일 경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진
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건축
사회는 ▲건축설계공모 관리업무
위탁 사항(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비 및 옥상 비가림시설
의 가설) ▲건축물 양성화 등의 조
례 개정 등 각종 당면 현안 등을 건
의했다.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 적용처 주방/화장실/사위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

환경부
환경 마크 획득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지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사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인터뷰

이인화 서울시의원 “건축 전문가 관점에서 현실적·효과적 정책 제시”

지하철 소외지역 교통불편 해소 우선 추진

교통위원회 활동 통해 주민 체감형 변화 노력

“건축물 성능·품질 종합 조정하는 건축사 역할 강화돼야”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축사 출신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라는 정체성과 경력을 토대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당선인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려 한다. 이번 인터뷰는 이인화 서울시의원(도원 건축사사무소)과 진행했다.

Q.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동안 주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및 현안, 그리고 생활 민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기 동안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일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개포동은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지하철역이 없어 출퇴근과 통학시 버스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은 증차해 배차 간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도 교통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현장의 대기시간과 혼잡도를 직접 확인하고, 노선 조정과 예산 확보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해 노후 주거지 정비, 재건축·재개발,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Q. 건축사라는 정체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계획에 불과했던 사업들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 ‘건축사’라는 배경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의 형태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지의 조건과 도시계획, 교통, 기반시설, 법규, 사업성, 주민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30년 이상 건축 실무에 종사하며, 하나의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행정 절차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지, 어느 단계



이인화 서울시의원

에서 갈등과 지연이 발생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 현안을 단편적인 민원으로 보지 않고 도시 전체의 구조와 발전 방향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구룡마을 개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기반시설, 공공성, 주민 부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는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로 연결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업을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건축사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강점을 활용하겠습니다.

Q.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의 독립적인 감리 권한을 보장하고, 책임에 걸맞은 적정 설계·감리 대가와 충분한 업무 수행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소방·기계·전기·조경·토목 등 분야별 역할과 책임, 협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가 건축물 전체의 성능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가 발주 관행과 과도한 행정업무를 개선해 건축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품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사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존중될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과 사회적 신뢰 또한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Q. 건축사 회원을 비롯해 건축업계, 나아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은 한 사람의 재산을 넘어 도시의 모습과 시민의 삶을 오랫동안 결정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건축사와 건축업계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건축의 가치를 단순한 공사비나 면적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 환경, 그리고 도시의 미래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건축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건축이 더 나은 생활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만든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축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I AM KIRA

김성래 건축사 · (주)성원 건축사사무소(충청북도건축사회)

“초심 잊지 않고 건축 색깔 만들어 갈 것”

졸업 후 10년간 한 회사에 몸담으며 업무에 능숙해졌지만, 몸과 마음이 편해질수록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김성래 건축사(주)성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과 건축사축구동호회 활동을 계기로 안일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되찾아

‘성원 건축사사무소’라는 자신만의 공간을 열었다.

개소 초기의 초조함과 절박함을 오히려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바꾸며 자신의 건축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성래 건축사. 그가 생각하는 건축사로서의 목표와 신진건축사들에게 필요한 환경,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건축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소에 따른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졸업 후 10년간 한 회사에 몸담으면서 업무에 능숙해진 반면, 몸



김성래 건축사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소방관을 위한 심과 치유를 담아낸 ‘이원119안전센터’ 전경
사진=성원건축사사무소

과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 어느덧 현실에 안주하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고, 선배 건축사님의 추천으로 충북건축사축구동호회에 가입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안일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의 가슴 뛰던 목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원’이라는 이름에는 거창한 사명보다는 “성래 원하는 거 다 해”라는 저만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건축

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저만의 건축적 색깔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하겠다’는 지금의 초심을 되새기며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입회 후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로서 저의 목표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공간을 만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의 생활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축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내가 만드는 공간이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신진건축사로서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선후배 건축사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실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후배 건축사들이 홀로 고민하지 않고 온전한 건축사로서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회가 따뜻한 감정이자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제가 요즘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건축 설계 방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접목한 렌더링 등 새로운 설계 툴과 방법론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며 앞서가고 있지만, 저와 같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은 새로운 기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우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별 사무소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설계 트렌드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협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주어진 프로젝트들에 집중하며 사무소의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건축사님들께 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곁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선·후배님들 덕분에, 저도 건축사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주변에 도움이 되는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이강준 한국건축설계학회장, “적정 설계대가 보장돼야 창의적 시도·지속가능한 건축가능”

건축설계의 질적 도약은 학계와 업계의 협력에서 시작
AI 시대에도 건축사의 책임과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현장으로…‘랩 투 랜드’를 꿈꾸다”

지난 7월 1일 한국건축설계학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강준 회장이 학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학계와 업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형적인 규모 확대보다는 학회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정교하게 다듬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특히 이 회장은 학계와 업계가 ‘프로페셔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동반자라고 강조한다. 지난 8월 7일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교육·연구·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이강준 회장을 만나 한국건축설계학회의 운영 방향과 학계·업계 간 협력, 건축설계산업의 개선 과제와 AI 시대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Q. 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학회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건축설계학회는 대형 학회에 비하면 규모가 큰 조직은 아니지만, 건축설계 분야에 집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왔습니다. 전임 회장단의 노력으로 한국건축설계교수회에서 공식적인 학회로 발전했고, 건축을 전공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 학회에 가입하고, 지난 5대 회장단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품어왔던 학회의 비전을 펼쳐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회가 잘해온 프로그램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일을 반복하기보다 ‘한국건축설계학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하고자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나 대한건축학회 등 여러 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모든 단체가 비슷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학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한다면 교육과 연구를 비롯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설계학회는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2층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

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이뤄져 온 교류와 협력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학계에서는 한국건축설계학회가 건축설계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공동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는 사무국 공간을 활용한 갤러리와 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랩 투 랜드(Lab to Land)’를 주요 테마로 삼아 연구실의 연구와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과 실무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실무교육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건축설계학회에는 건축학교육인증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비건축사부터 현직 건축사까지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의 인력풀을 학회가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 역시 공간이나 후원 등의 방식으로 학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선진 건축교육과 실무를 경험하셨습니다. 국내 건축교육과정이나 건축사 자격제도, 실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설계대가 보장돼야 건축사의 창의적인 시도와 후배 건축사 육성이 가능합니다. 영국 AA 스쿨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건축을 ‘실험’으로 바라보는 교육방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유도하고 기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축을 고민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건축적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다음 세대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사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시



본지와 인터뷰에 나선 한국건축설계학회 이강준 회장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설계대가는 너무 낮습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민간 준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축사 업무대가가 현재보다 두 배 정도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의 상호협력 통해

건축설계 지속가능한 발전

담보할 수 있어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와 같은 사무소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디자인을 위한 시간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건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비가 책정되고 추가 설계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건축사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다면 건축사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주니어 아키텍트 육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건축계가 실무적·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Q. AI·BIM 등 새로운 기술이 건축사의 역할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AI가 설계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건축사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건

축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건축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사는 건축디자인뿐 아니라 건축안전과 건축허가 등 다양한 과정에서 명확한 책임을 갖는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계 생산방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2~3주가 걸리던 기획업무 수준의 이미지나 평면도 작업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일주일 정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건축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건축사라는 직업에 진입하는 모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전적으로 AI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AI 등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면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판단과 책임, 창의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 건축설계 분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건축사의 권익과 업역 확대를 위해 건축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건축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

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여러 단체가 있지만 상당 부분 같은 건축인들이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조직이 나뉘어 있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건축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비교적 일원화돼 있어 정부를 상대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책 전달력도 강합니다.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가 보다 존중받고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협회처럼 건축계도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통된 의제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장과 학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들도 읽는 매체입니다. 신문이 그러하듯, 업계와 학계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교집합 안에서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와 업계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 역시 학계의 울타리에 머무르기보다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현장 역시 학계의 연구와 교육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장과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설계학회의 업무협약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우리 건축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관희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 자리잡은 한국건축설계학회 사무국 전경. 소규모 갤러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수상 그 후

예정우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씨마(대구광역시건축사회)

제34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공부문 우수상 ‘서변숲도서관’

숲의 결을 따라 세대를 잇는 공공건축

‘비움과 연결’의 건축학

산지와 도심 경계,

서변근린공원 녹지축 이어받은 풍경 같은 도서관

한정된 대지·경사지 제약 넘고

계단식 열람공간에 담아낸 일상의 여백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근린공원 안 자락, 산지와 도심이 만나는 경계에 건축물 하나가 서 있다. 마치 서면 숲의 나무들을 닮은 듯한 수직 루버가 정갈하게 서 있는 건물이다. 공원의 녹지 흐름을 자연스럽게 끼안은 이곳은 지난해 봄 문을 연 제34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공부문 우수상 수상작 ‘서변숲도서관’ (예정우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씨마)이다.

이곳의 행정동 이름은 무태조야동(無怠調也洞)이다. 서변동, 동변동, 조야동, 노곡동 일대를 아우르는 이곳은 고려 태조 왕건이 신하들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無怠) 마음을 조율했다(調也)는 유래를 간직한 역사 깊은 동네다. 서변숲도서관의 설계는 바로 이곳의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 낸 설계공모에 (주)건축사사무소 씨마가 응하면서 비롯됐다.

예정우 건축사와 사무소 식구들은 금호강과 팔거천,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맥락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 설계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건축물이 독립된 오브제로 존재하기보다 주변 공원의 풍경과 보행 흐름의 일부가 되도록 기획된 생활밀착형

공공건축으로 자리 잡았다. 공모전 수상과 개관을 거쳐 2년 남짓의 시간이 흐른 지금, 건물은 그 뒤로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 드나드는 주민들의 일상과 온기가 더해지며 도서관은 마을의 소중한 문화적 이정표가 되었다.

숲의 수직성을 건축으로 번역
공원을 품은 열린 외관

건축물을 가장 먼저 돌보이게 하는 것은 입지적 특성을 기민하게 읽어낸 외관이다. 설계팀은 공원의 녹지축이 이어지는 자리에 건물을 앉히고, 이용자가 나무 사이를 지나 자연스럽게 내부로 들어오도록 진입 동선을 다듬었다.

건물 외피에는 나무의 수직성과 숲의 깊이감을 건축적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한 수직 루버(Louver)를 반복 적용했다. 투명한 유리면과 깊은 차양이 어우러진 외관은 직사광선을 부드러운 빛으로 바꾸어 실내로 퍼뜨린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어디서나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공원의 사계절을 숲 속에 앉아있는 듯 온전히 체감할 수 있다.

제약 속에서 지켜낸
‘공간의 여백’과 세대 통합

설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정된 대지 안에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육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여가시설, 그리고 도서관 본연의 프로그램과 법정 주차공간을 모두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제한된 차량 출입구 위치 속에서 주차장 진입 동선이 공원의 보행 흐름과 녹지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이 최대 과제였다.

설계자는 단순히 실들을 빼곡히 채워 넣는 대신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관계와 여백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다. 각 세대의 전용 공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나누되, 중앙의 열린 홀을 통해 어린이와 일반 이용자, 어르신이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교류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간’을 만들어냈다.

특히 2층과 3층을 관통하는 계단식 열람공간(다량서가)은 이 건물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순한 이동 통로에 그치던 계단에 깊은 여백을 부여해, 책을 읽고 머물며 공원을 조망하는 일상의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 활동이 중첩되는 가변적 플랫폼으로 완성했다.

“숲 속 북카페 온 듯”
주민들 일상에 스며든 생활문화공간

개관 이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반응에서도 설계 의도가 잘 구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통유리창 너머 공원의 녹음을 내려다보며



제34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공부문 우수상 ‘서변숲도서관’

설계=예정우 건축사, 사진=윤동규



제34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공부문 우수상 ‘서변숲도서관’

설계=예정우 건축사, 사진=윤동규

책을 읽는 경험을 두고 “도서관이라기보다 자연 속 북카페에 온 듯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다량서가’는 차분히 독서와 음악을 즐기거나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의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또한 1층 어린이자료실과 4층 노인복지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덕분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한 지붕 아래서 편안하게 머무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정착했다. 단순한 장서 보관소를 넘어 다양한 문화강좌와 VOD 상영, 휴식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깊숙이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이번 설계를 담당한 예정우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예정우 건축사

예정우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Q. 서변숲도서관을 설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점은 무엇인지요?

설계 공모에 참여할 때부터 공공건축이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변근린공원 안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건축이 공원을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한된 대지 안에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의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법정 주차공간을 수용하면서도 공원 속 공공건축이 가져야 할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차량 출입구의 위치와 폭이 제한되어 있어 주차

장 진입 동선과 공원의 보행 흐름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길 때문에 녹지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조정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제약 속에서도 계단식 열람공간과 열린 홀처럼 이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공간의 여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Q. 수상 후 2년 남짓 지난 지금, 의도한 대로 공간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을 종종 찾아 설계 당시 의도한 취지가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주

민들과 어르신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서관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공원을 향해 열린 계단식 열람공간과 어린이자료실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책을 읽고 쉬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건축은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사용을 통해 비로소 그 성격을 완성해 나간다고 믿습니다. 산책하다 부담 없이 들르고 머무르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처음의 바람이 의미 있게 실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Q. 평소 지향하는 건축적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저희는 “선이 모여 집이 되고, 마을이 모여 문화가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개별적인 형태나 조형으로만 존재하기보다 사람과 장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엮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은 건축가의 표현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머물며 주변의 풍경과 도시,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해 주는 열린 장소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운영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빛을 다루는 건축적 틀 위에, 세대와 장애 유무를 넘어 모두가 편리하게 어우러지는 유연한 공간들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박하고 유쾌한 도시 건축 상파울루 도심을 가로지르는 SESC 24 de Maio



도시와 건축 이야기

정선아 건축디자이너
Archimaera Architecture(New York)

브라질 상파울루 구도심 한복판, 서울의 명동을 떠올리게 하는 24 de Maio 거리의 한 코너에 문화센터와 주민 복지시설을 한데 합쳐놓은 듯한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MMBB Arquitetos와 브라질 현대건축의 거장 Paulo Mendes da Rocha가 설계한 SESC 24 de Maio다.¹⁾

지상 13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 안에는 도서관과 전시공간, 공연장, 공방, 치과를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과 카페, 체육시설, 광장, 그리고 옥상 수영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프로그램만 나열해도 작은 도시 하나를 수직으로 쌓아놓은 듯하다. 단면을 보면 이러한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공연장과 체육시설처럼 높은 층고가 필요한 공간과 비교적 낮은 층고로도 충분한 공간들이 서로 다른 높이와 크기로 겹쳐진다. 도심의 제한된 대지 안에서 서로 다른 활동들이 층층이 쌓이며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드나드는 활기찬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어낸다.

외형만 보면 의외로 답답하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품고 있음에도 건물은 도심의 코너에 놓인 커다란 유리 상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층을 길게 누비는 램프가 건물 곳곳을 이어주며, 때로는 내부를 향하고 때로는 거리 쪽으로 열리면서 도시와 건물의 풍경을 번갈아 보여준다. 도시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기에 내부와 외부, 한 층과 다른 층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느슨해지고 적극 연결된다.

이 대범한 태도는 1층에서 더욱 과감해진다. 코너 대지의 모서리를 건물 내부로 처리해, 두 개의 직교하는 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를 수 있는 통로이자 작은 광장처럼 열어두었다. 길을 걷던 사람은 꼭 건물을 이용할 목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반대편 거리로 빠져나갈 수 있다. 반대로 각종 설비와 서비스 공간은 건물 한쪽 끝

으로 몰아 처리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최대한 자유롭고 연속적으로 남겼다.

이러한 설계의 어휘는 건물의 크고 작은 곳에서 일관되게 반복된다. 투박하고 직접적이지만 어딘가 유머가 있다. 마땅히 숨길 곳이 없어 1층 한가운데 거대한 오브제처럼 놓인 원통형 물탱크도 그렇고²⁾, 각 층의 프로그램과 사용 방식에 맞추어 별도로 제작된 가구들도 그렇다. 옥상 수영장의 한가운대를 뚫고 올라오는 커다란 원기둥 형태의 배기 굴뚝 역시 굳이 감추거나 어설픔게 장식하지 않는다.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을 억지로 지우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인 뒤, 오히려 공간의 성격을 만드는 요소로 바꾸어버린다. 설비는 설비답고, 구조는 구조답고, 가구는 가구답다. 무심할 정도로 솔직한데 그 솔직한 자체가 위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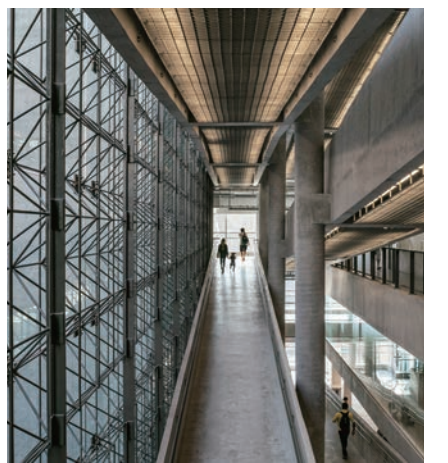
때문에 이 건물은 들여다볼수록 재미있다. 복잡한 도시적 조건과 서로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 구조와 설비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낸 설계자의 재치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

데 이 프로젝트에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반전이 하나 있다. 이 활기차고 자유롭게 작동하는 건물이 사실 신축이 아니라는 점이다.

SESC 24 de Maio는 기존에 있던 백화점 건물을 고쳐 쓴 증개축 프로젝트다. 하지만 완성된 건물에서는 과거 건물의 모습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보존된 옛 파사드도 없고,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노출해 둔 낡은 벽도 없다. 기존 건축의 기억을 눈에 띄는 장치로 전시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설계팀은 기존 건물의 골조와 슬라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필요한 곳에서는 슬라브를 철거하거나 연장하고, 새로운 구조체와 기둥을 끼워 넣으며 전혀 다른 공간 질서를 만들었다. 기존 층과 구조를 남기되, 그것이 새 건물의 디자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이미 존재하던 건물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대하기보다는, 다시 자르고 붙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건축 재료로 바라본 셈이다. 기존의 슬라브와 골조는 과거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자원’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태도는 앞서 건물 곳곳에서 보았던 설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탱크를 억지로 감추지 않았던 것처럼, 배기 굴뚝을 장식으로 위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존 건물 역시 지나치게 귀하게 모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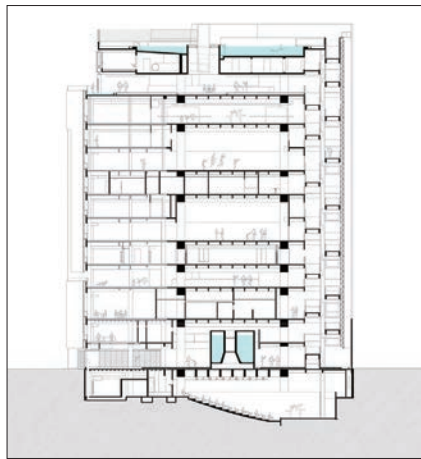


내부 뷰

자료=mmbb.com.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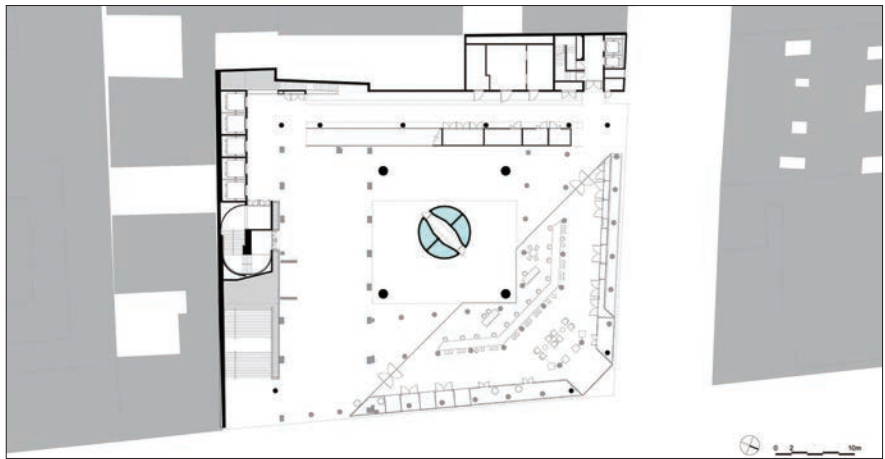
지도,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모두 철거해버리지도 않았다. 주어진 것을 무심할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이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자르고 비우고 덧붙인다.

결국 SESC 24 de Maio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옛것과 새것의 시각적인 대비가 아니다. 이곳에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친절하게 가리키는 장면이 거의 없다. 건물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전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물질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재사용한다. 투박함과 무심함,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트가 가구와 설비에 서부터 도시를 대하는 방식, 심지어 기존 건물을 다루는 태도에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신선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른다. 오래된 건물을 얼마나 닦게 보존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은 어디까지 새로운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는가.



단면도

자료=mmbb.com.br



1층 평면도

자료=mmbb.com.br

1) SESC 24 de Maio / 설계: MMBB Arquitetos, Paulo Mendes da Rocha / 완공: 2017
2) <https://caviar.archi/secc-24-de-maio-sao-paulo-brazil/>

[참고문헌]
1. MMBB Arquitetos, Paulo Mendes da Rocha <https://mmbb.com.br/>
2. Divisare <https://divisare.com/authors/47181-paulo-mendes-da-rocha>
3. Vitruvius <https://vitruvius.com.br/revistas/read/projetos/17.201/6673/>
4. Archdaily <https://www.archdaily.com/pt/889788/secc-24-de-maio-paulo-mendes-da-rocha-plus-mmbb-arquitetos>
5. 사진 및 도면자료 <https://mmbb.com.br>

가우디재단 공식 월드투어 展, 10월 31일까지 서울 신사하우스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도면·가우디 자필원고 등 선보여

‘가우디: 서울에서 다시 태어나다(Gaudí: Back to the Origins)’



왼쪽부터 가우디재단 알렉스 카날스 그라우 디렉터, 가우디서울 조운지 전시총괄, 정림건축jpa 김경훈 CCO
사진=가우디서울

가우디의 예술과 건축 세계를 오감으로 만나는 가우디재단 공식 월드투어 전시 ‘가우디:서울에서 다시 태어나다(Gaudí: Back to the Origins)’가 8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공식 개막했다. 전시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스페인 가우디재단과 가우디서울이 공동 주최하며, 재단이 소장한 원본 약 30점과 공인

레플리카 42점을 비롯해 미완성 프로젝트의 세계 최초 3D 복원, 대형 미디어아트, AI 인터랙티브 체험, 서울 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특히, 전시가 진행되는 신사하우스는 승효상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로재)가 리모델링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전시 공간이며, 정림건축 jpa에서 전시의 주관과 공간 기획을 맡았다.

이번 전시는 가우디의 친필 노트와 건축 도면, 원본 타일 모델, 유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작품이 탄생한 배경과 가우디의 철학, 그의 건축적 아이디어가 현대와 미래로 확장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선보인다.

또한, 서울 전시에는 그동안 스케치로 남아 있었던 가우디의 미완성

프로젝트 ‘호텔 어트랙션(Hotel Attraction)’이 100여 년 만에 3D 모델로 되살아나 국내 관람객에 소개된다. 가우디재단 연구팀이 4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가우디 전문가와 건축사, 연구자들이 협업해 도면과 스케치로만 남아 있던 건축물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했다.

전시 개막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의 내용은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신사하우스의 ‘장소적 특징’과 이번 전시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습니까.

전시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장소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신사하우스는 승효상 건축사가 리모델링한 한국적인 공간인 동시에, 로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개막에 앞서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선보였습니

다. 당시에는 평면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전시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동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관람객이 방마다 다른 이야기와 체험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동선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Q 가우디재단이 중시하는 오리진(Origin)과 반대로 이번 전시에는 인터랙션 등 융합적인 면도 보입니다.

가우디재단 역시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상업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가우디가 남긴 건축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데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문화적 확장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은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다른 나라에서 개최될 때에도 건축물에 담긴 가우디의 정신과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큐레이션이

전제된다면, 가우디의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재단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Q ‘가우디 정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건축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우디가 남긴 건축적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전승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44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완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설계를 이어온 건축사들의 역할과, 이를 지켜보는 대중이 어떤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우디의 정신과 유산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대중과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번 전시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아라 기자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march@donga.com)



AI시대?, “독창성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



AI 생성이미지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도 질 낮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생성형 AI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멋진 광고를 만들어줘”라고 주문한다고 해서 AI가 알아서 멋진 광고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AI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저명 마케팅 학술지 ‘Journal of Marketing’에 실린 연구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시한다. 독일 함부르크대 등의 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는 생성형 AI에게 단순히 좋은 광고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좋은 평가를 내린 광고를 학습시키는 것은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보여줬다.

연구진은 21만 개의 온라인 광고를 수집하고 이 가운데 자동차가 들어간 543개의 광고를 추려 소비자들에게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이런 과정을 통해 확보한 가장 평가가 좋았던 광고들을 AI에게 학습시켜 새로운 광고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연구에는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 활용됐다.

결과는 명확했다. 소비자 반응이 좋은 광고를 학습한 AI가 만든 자동차 광고의 평가 점수는 4.55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실제 온라인 자동차 광고의 평균 점수는 3.79점이었다. AI가 만든 광고가 눈에 띄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연구진은 또 소비자 평가가 높은 광고를 학습시킨 경우와 무작위로 고른 광고를 학습시킨 경우, 그리고 별도의 학습 없이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를 만들어달라고 프롬프트를 넣은 경우를 비교했다. 그 결과, 소비자 평가가 높은 광고를 선별해 학습시킨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즉 생성형 AI의 성능을 좌우한 것은 단순히 AI의 이미지 생성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학습시켰느냐였다.

그렇다고 이 연구가 AI 광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AI가 대중적인 제품이나 비교적 넓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광고를 만드는 데 강점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품의 차별성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연구진은 독특한 디자인과 좁은 타겟 시장을 가진 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AI가 이런 독특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제품일수록 소비자의 예상을 깨는 ‘의외성’이나 ‘새로움’이 중요한데, AI는 기존 성공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더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었지만 독창적 요소를 부각하는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과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AI시대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또 AI가 광고대행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이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은 남아있다.

AI는 평균적으로

좋은 안을 내지만

독특함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해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연향(蓮香)을 품은 군자의 정원, 유등지(柳堤池)



일감문 뒤로 보이는 군자정

사진=김진섭 건축사

여름이 깊어지면 경북 청도의 유등지(柳堤池, 공식 명칭 유호연지)는 짙은 초록 연잎의 바다 위로 화려한 진분홍 홍련을 피워낸다. 약 6만 8,000㎡(약 2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수면 위에 수많은 연잎이 겹겹이 들어차 푸른 바다를 이루고, 그 위로 피어난 진분홍 홍련은 방문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청도 8경 중 제5경으로 손꼽히는 유등지는 수면 위로 열린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녘부터, 배롱나무꽃과 어우러져 화려함을 자랑하는 한낮, 그리고 잔잔한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히는 밤에 이르기까지 유등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역사적 유래와 장소성

유등지의 역사는 먼 신라 시대로 올라간다. 본래 ‘신라지(新羅池)’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연못은 가뭄과 수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연못이 지닌 진정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조선 시대를 거치며 단단하게 굳어졌다.

조선 초기, 단종 복위 사건 및 무오사화 등 정국의 풍파를 뒤로하고 이곳으로 낙향한 모현(慕軒) 이육(李陸) 선생이 은거하며 연못 둘레에 버드나무를 심고 연꽃을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버드나무 제방이 있는 연못’이라는 뜻의 유호연지(柳湖蓮池) 혹은 유등지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불리게 되었다.

유등지는 둘레 약 1km(약 981m)에 이르는 정방형에 가까운 연못으로, 수심은 평균 2m 안팎이다. 주변이 나지막한 산세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모이고, 햇볕이 풍부하게 드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꽃이 자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연못에 서식하는 식물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홍련이다. 7월 중순에 이르면 짙은



배롱나무꽃과 유등지

사진=김진섭 건축사

초록빛의 넓은 연잎들이 연못 전체를 뒤덮고, 그 사이사이에 주먹만 한 진분홍 꽃봉오리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다. 수면을 감싸는 수생 생태계는 각종 물고기와 곤충,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살아있는 자연 생물 교실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선비 정신의 재발견

연꽃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방문하기를 권한다. 연꽃은 온도가 오르면 꽃잎을 닫는 성질이 있어, 햇살이 강해지기 전인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 아침 햇살이 수면의 물안개를 뚫고 비출 때, 은은한 연향과 함께 피어나는 홍련의 모습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작가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유등지 주변은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계절마다 변화하는 나무와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연의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걸으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연못 둘레를 따라 조성된 약 1km의 수변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이다. 여름철 유등지 둘레길을 따라 감싸듯 피어난 배롱나무꽃(백일홍)과 수면의 홍련, 그리고 연잎의 초록빛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한 폭의 채색화 같다.

다리를 건너 일감문을 지나 군자정 마루에 앉으면 연못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유등지 중앙에 오롯이 자리 잡은 인공 섬과 그 위에 서 있는 ‘군자정(君子亭)’은 단순한 관풍(觀風)의 공간이 아니다. 당대 영남 사람의 선비들은 세상의 온갖 권력 투쟁과 탐욕, 번잡한 소란을 뒤로하고 이 군자정에 모여 앉았다. 연못의 푸른 물결과 진분홍 꽃망울을 바라보며 그들이 읊었던 것은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지향점인 ‘군자(君子)의 길’이었다.

유등지의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연향을 마시는 시간은, 어쩌면 이 바쁜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고귀한 쉼표이자 성찰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전하는 청도 유등지의 연꽃처럼, 우리 사회 역시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라온(대구광역시건축사회)

시로 보는 세상

바닷물은 쓰다

- 김수열

철성판 등에 지고 저승문턱 오락가락
반세기 넘도록 바닷밭 일구다
대상군 자리 큰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집에서 노느니 할망바다에라도 나가
물질 나간 큰며느리 대신
오물조물 보잘 잡아 찬거리 장만하는
소섬 할머니는
바닷물이 쓰다 하신다

모르는 사람들은 짜다 하는데
소섬에서 나고 소섬이 될 소섬 할머니는
바닷물이 쓰다 하신다

- 김수열 시집
『물에서 온 편지』 중에서/
삶창시선/ 2017년

제주 해녀들은 물질 능력과 숨을 참는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통군)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대상군은 상군 중에서도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해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를 말한다. 이 자리는 절대 대물림되지 않는다. 단순히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마을 해녀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끄는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대상군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고령의 해녀들이 안전하게 물질할 수 있는 얇은 바다를 할망바다'라고 한다.

<함성호·시인>

AI 선택의 시간은 지났다



8월 초,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해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으로 세 아이와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하루에 한건씩 예상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착한 첫날은 숙소 앞의 비포장 주차장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고, 둘째 날은 물놀이 후에 아내의 핸드폰에 물이 들어가 작동되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는 초등학교생인 둘째의 배앓이로 고생을 해야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곳은 핸드폰 안의 ‘AI 어플’ 이었다. 긴급 펑크 수리 후에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을 발견했을 때는 셀프로 공기압 빼는 방법을,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단자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자연 건조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배가 아픈 아이의 증상을 물어보고 진료 받을 때까지의 과정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대응할 수 있었다.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건축 실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작년 말에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의 문주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을 때, 현장 사진을 찍고 AI로 브랜드의 기존 문주 이미지를 합성하여 야간 투시도 이미지를 보내 드렸다. 올해 초, 기존 건물이 외부 엘리베이터 증축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현장 사진에 AI로 엘리베이터 설치 안을 여러 개 생성해서

보내 드렸다. 생성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수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와 건축위원회 회의 시에 이미지가 보고되었고, 그 후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AI로 인해, 이미지를 먼저 제공하는 프로세스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계약 전에도 활용이 되지만, 설계 시작할 입면도 2장으로 외부 투시도를 생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여드린 사례가 있다. 도면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빠르게 보여드리니, 너무 좋다고 만족해하시던 그 밝은 표정을 잊을 수 없다. 1인 건축사에겐 CG 외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준공 사진의 전것줄 지우거나 이미지 보정은 말할 것도 없다.

TV가 일상이 되어 수신료를 내듯, 인터넷이 일상이 되어 요금을 내듯, 핸드폰이 일상화 되어 약정 금액을 지불하듯, 기술

의 발전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과고돌고 변화시킨다. 두려운 마음과 적응의 시간을 지나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게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AI 활용을 위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 또한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AI를 선택하든 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두려운 존재가 아닌 오히려 사람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고마운 느낌을 받고 있다. 가끔 같은 지역이나 서울의 건축사님들의 AI 활용 시연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 업무용 PC로 방법을 공유한 경험 이 있다.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실 때 알려드리기도 한다. 그 때마다 건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어떻게 AI를 배우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하나였다. AI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바로 지금!

건축의 지적 가치 회복을 위한 “공론의 장”



대중성이나 단순한 실무 팁을 넘어서, 건축을 ‘지적 산물’ 이자 ‘문화적 텍스트’ 로 바라보는 인식을 회복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건축의 깊이를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내 건축 생산 프로세스는 고도로 효율화된 행정 메커니즘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공공프로젝트의 설계공모가 공지되고, 수

십 개 이상의 작품이 제출되고, 공개심사를 통해 당선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건축이란 무엇인가?’ 혹은 ‘건축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질 기회가 확장되지 못하고, 매끈하지만 무의미한 이미지들의 반복적 생산과 당선의 희비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공건축은 건축의 질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 수치적 정합성 그리고 모호한 법규와 설계 공모지침의 총족이라는 관료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건축사들의 뒷말과 험담 또는 무관심이 비평과 공론의 장을 파편화시키고 건축은 건축사 ‘개인의 전투’ 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영역에서는 공모전 당선안들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하는지, 왜 준공 이후 도시 맥락과 불화를 일으키는지, 왜 공간의 현상학적 깊이를 잃고 표피적 디자인에 머무는지에 대한 ‘사후 리뷰’ 가 필요합니다. 민간건축의 영역에서는 자본과 의뢰인의 직접적인 요구로 인하여 건축이 건축사의 지적 활동의 결과가 아닌 시장이 요구하는 기호품으로 어떻게 전락하는지에 대한 ‘상시 리뷰’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집단 내 건전한 공론의 장에서 이루지는 (좋은) ‘건축’ 에 대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기준이 쌓여가고 공유되는 ‘지적 연대’ 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건축은 건축사 개인이 다투고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건축집단이 구축한 지적토대 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건축은 고립된 천재의 작업실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전문가들의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산적인 비평과 따뜻한 지지를 보낼 때, 공공건축의 공공성은 더욱 깊어지고 민간건축의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비방이 아닌 건설적인 비평이 오가는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축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사진=정병협 건축사)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제주 바닷가 몽돌해변. 파도가 스치고 지나갔다가 다시 매만져주니 동글동글하면서 말간 알곡을 내민다. 끊임없이 파도의 손길에 길들여져 깨끗하고 매끈한 표정이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어 긴긴 세월을 묵묵히 지나왔으리라. 오랜 시간 다듬어진 몽돌들을 바라보면서, 새삼 위대한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며 심호흡을 해본다.

정병협 건축사·나은 건축사사무소(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만평

강정삼 건축사·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부산광역시건축사회)

새로운 논설·집필위원! 더 강한 건축사신문!

5,2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김재록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장용호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출판팀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5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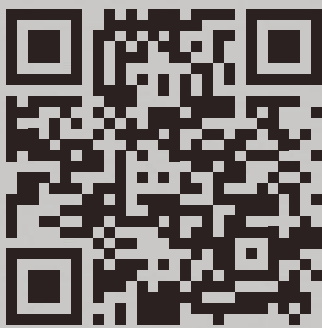
1965-2025

6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더 멀리



대한건축사협회 60년사

KIRA 60 YEARS OF HISTORY



e-역사관 바로 가기
e-book, 60년사 영상 등 수록